

2014년 통권 제 2호

歷史紀行班 春季古蹟踏查



亞洲大學校 史學科 歷史紀行班

목 차

- ▶ 답사일정
- ▶ 우리가 가는 길
- ▶ 시대속의 강화도
- ▶ 강화도 지역개관
- ▶ 강화 역사박물관

선사시대(先史時代)

- (1) 강화지석묘

고려시대(高麗時代)

- (2) 전등사
- (3) 정족산 사고
- (4) 삼랑성
- (5) 고려궁지

조선시대(朝鮮時代)

- (6) 갑곶돈대
- (7) 광성보
- (8) 덕진진
- (9) 초지진

읽기자료

- (10) 병인양요
- (11) 신미양요
- (12) 성공회강화성당

답사 일정

▶ 첫째 날

아주대학교 출발 → 강화역사박물관 → 강화지석묘 → 갑곶돈대
→ 광성보 → 덕진진 → 초지진 → 숙소도착

▶ 둘째 날

숙소 출발 → 전등사 → 고려궁지 → 성공회 강화성당 → 아주대
학교 도착

우리가 가는 길



TP.1 강화역사박물관	5 덕진진
2 강화지석묘	6 초지진
3 갑곶돈대	7 전등사
4 광성보	8,9 고려궁지, 성공회강화성당

역사속의 강화도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는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으로도 불리 올만큼 선사에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 답사에서는 강화의 구석구석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선사시대와 고대

- 구, 신석기 시대 : 쌍날찍개 및 신석기시대 토기 발견
- 청동기 시대 : 고인돌 150여기 중 70여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
- 삼국시대 : 혈구군의 설치 및, 불교의 유입으로 전등사를 비롯한 전통사찰의 창건

고려시대

- 고려궁지를 갖추어 국난을 극복하고자 했으며, 강화 선원사에서 고려대장경이 제작됨
- 고려시대 임시 수도로서 고려 왕릉(홍릉, 석릉, 곤릉, 가릉, 능내리석실분)이 축조, 충렬왕 12년(1286년) 문성공 안유가 공자상 봉안한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교동향교)가 있음

조선시대

- 국방상 방어기지로써 성·진·보·돈대·포대 등 국방유적이 설치 되었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왕실의 피난지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왕실족보 보관을 위한 선원보각과 실록보관을 위한 장사각으로 구성된 정족산 사고(史庫) 및 외규장각, 행궁이 설치됨
- 숙종 때에는 12개의 진보와 53개의 돈대가 설치되었고, 강화산성과 강화외성이 개축되었으며, 강화를 중심으로 하곡 정제두 선생의 강화 양명학파의 학풍을 이루게 되고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

개항전후의 강화

- 수도의 관문에 위치하여 서구의 침략세력이 충돌하는 전장으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을 거치면서 항쟁과 개항의 중심에 있었으며 , 병인양요로 프랑스군에 의해 왕실의 의궤를 보관하던 외규장각 도서관이 약탈되었고 개항 이후 서양종교의 수용과 함께 근대식 학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사관학교인 통제영학당이 설립되었음.

강화도 지역개관

14 김경현



▲ 강화도 지도

강화도는 오대도(제주, 거제, 남해, 진도)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이고, 11개의 유인도와 1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한반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이고, 섬 전체가 가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유서가 깊고 아름다운 문화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다.

호국의 고장,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던 지역인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의 유구한 한반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강화도의 역사가 선사시대부터 이어졌다는 사실은 강화도 곳곳에서 발견된 구석기·신석기 유물과 다수의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잦은 침략으로 고종이 장기항전을 하기 위해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가까운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 (강도시대 : 1232~1270년) 강화도는 장기전에 제격이었는데, 먼저 몽골군이 수전(水戰)에 약하다는 점과 강화 해협이 유속이 빠르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공격이 힘들다는 점, 그리고 몽골군의 상륙을 어렵게 만든 광활한 갯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해상으로 물자를 공급받을 수도 있었다. 그렇기에 강화도는 개경환도까지 39년 동안 몽골의 7차 침입을

막아오면서 호국의 보루¹⁾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방어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우에 의해 팔만대장경이 주조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보장처²⁾의 역할도 했던 강화도는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에 국왕의 피난처였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인조의 피신 시도가 있었기도 한 곳이다. 강화도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함락되기도 했었지만 이는 효종과 숙종에게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5진(鎭)·7보(堡)·8포대(砲臺)·54돈대(墩臺)가 숙종에 의해 강화도에 설치되면서 강화도는 방어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나갔다.

조선 말기에도 강화도의 수난은 계속됐다. 그 당시 동양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서양세력들이 통상을 요구하며 침략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1866년에 프랑스가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강화도에 침범하는 병인양요가 일어난다. 양헌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하였는데, 프랑스인들이 퇴각을 하면서 외규장각의 도서를 약탈하였다. 연이은 시련으로 1871년에는 미국이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號) 사건을 빌미로 통상을 요구해오면서 강화도에 무력 침략을 한 신미양요, 1875년 일본군함 운요호(雲揚號)가 강화도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발생한 운요호 사건이 있다. 운요호 사건으로 그 다음해에는 강화도 조약이 강제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이 강화도에서 일어났음은 강화도가 여전히 한반도에서 그 중요성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강화도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상처받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 강화도에는 다양하고 많은 문화재와 구비문학 등이 존재한다. 오늘날의 강화도는 역사적·문화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1)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건축물.

2) 保障處 전란 때 임금과 조정이 대피하는 곳. 대몽항쟁시기에 만들어진 고려궁터 및 성곽은 강화도가 외세의 침입에 따른 피난처로 적합하게 만들었음.

강화 역사 박물관(江華歷史博物館)

14 홍형택 14 송주언



▲강화 역사 박물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부근리)에 있는 강화역사박물관은 2010년 10월 23일에 개관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137호 강화고인돌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강화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시, 보존,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강화는 각 시대마다 해상관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다. 하지만 그동안 강화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보관할 데가 없어 외부 기관에서 관리했다. 하지만 현재 강화역사박물관이 생기고 나서 각지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는 강화의 유물들과 새로 출토되는 유물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전시와 교육·문화행사 등을 마련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1층에는 고려와 조선시대 등 근 현대의 강화 유물과 민속사를 볼 수 있는 전시장이 있고, 2층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의 상설 유물전시장과 체험관이 있다. 이 곳 강화 역사 박물관에는 구석기시대유물 3점, 신석기시대 유물 2점, 청동기시대 유물 29점, 고려시대 유물 100점, 조선시대 유물 28점, 근현대유물 12점, 기타유물 3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중 돋보이는 하나는 조선 숙종 37년(1711) 강화유수 윤지완이 주조한 것을 그후 유수 민진원이 정족산성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다시 주조한 강화동종이다. 보물 제11-8호. 높이 176cm, 지름 145cm, 두께 21cm. 꼭대기에 머리를 좌우에 두고 얹힌 용이 있고, 그 몸 밑에 공간을 두어 종을 매달게 되어 있다. 몸통은 중앙에 굽게 튀어나온 횡대(橫帶)를 둘러 상하로 구분되며 어깨부분에 비스듬히 나온 턱이 있는데, 이는 고려

시대 동종에서 흔히 발견되는 입화형(立花形)의 퇴화형식이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1871년 신미양요³⁾ 당시 장수(將帥)의 상징이었던 어재연장군⁴⁾의 수자기이다.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帥字旗)는 조선시대에 군영(軍營)의 최고지휘관이 사용했던 군기(軍旗)이다. 당시 미 해군이 이 기를 노획하여 본국으로 가져간 후 미 해사박물관에 보관해 오던 것을 한국 해군과 문화재청의 노력으로 2007년 10월 22일에 장기대여형식으로 반환되었다.

3) 1871년(고종 8) 미국 아시아함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온 사건.

4) 1823(순조 23)~1871(고종 8). 조선 후기의 무장.

선사시대(先史時代)

강화지석묘

강화지석묘(江華支石墓)

14 정승우



▲강화 부근리 지석묘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써 고인돌로도 불린다. 고인돌은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뉘어진다. 북방식은 지상에 4면이나 2면을 막아 판석으로 묘실을 설치하고, 그 위에 평평하고 넓은 덮개돌을 올려놓고, 묘실을 지상에 설치했다. 반면 남방식은 지하에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상석을 놓은 다음 몇 개의 낮은 돌을 받쳤다. 그

래서 북방식, 남방식 고인돌을 각각 탁자식, 바둑판식 고인돌로도 부른다.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인 덮개돌을 채석하고 운반하여 무덤을 설치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한 지석묘는 당시 지배층의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상징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 유물이다. 특히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지상에서 높이 2.6m, 덮개돌의 크기는 길이 7.1m, 너비 5.5m이며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 지석묘들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한다.

강화 고인돌의 특징은 대략 다섯 가지이다. 첫번째, 고려산·별립산·봉천산 등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고려산을 중심으로 90기 이상이 분포하고 있고, 가장 북쪽의 별립산과 봉천산 일대에 32기가 분포하는 등 강화의 북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두번째, 여러 기의 고인돌이 한 곳에 떼를 이루고 있다. 10여 곳이 넘는 지역에 평균 14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어 분포한다. 세번째, 산의 경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과거에 바닷가나 갯벌로 되어 있던 지역이 현재에는 평지로 변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번째, 탁자식 고인돌 비중이 가장 높다. 탁자식 고인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 지역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5성혈(星穴)이 만들어져 있는

고인돌의 수가 적다는 점이다. 총 150여 기의 고인돌 중 성혈이 만들어진 고인돌이 3기(삼거리고인돌 등)에 지나지 않는다. 성혈은 대개 개석식⁵⁾에서 발견되는데 강화는 대다수가 탁자식이기 때문에 그 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한다.

부근리의 고인돌들은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유적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인근 하점면 삼거리 유적에서 북방식(탁자식) 고인돌 5기를 발굴했을 때 석실안에서 민무늬토기 조각, 무기류인 간돌검과 달도끼, 청동기시대의 방직술을 증명하는 돌가락바퀴 조각 등이 나온 적이 있고 고인돌 언저리에서 빗살무늬토기 여러 점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부근리 고인돌 유적에도 청동기시대의 무덤임을 확신하는 유물들이 묻혀 있다고 짐작한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군집성이 높다. 그리고 다양한 외형적 형태의 존재, 거대한 규모, 다양한 무덤방의 형태, 간돌검의 부장 등 세계적으로도 큰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강화군 하점면과 양사면 일대의 40여개의 고인돌들은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부근리의 9개의 다른 고인돌과 함께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5) 돌에 파여진 구멍으로 고인돌의 덮개돌이나 자연암반에 새겨진다.

6)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바로 뚜껑으로 덮은 형식이다.

고려시대(高麗時代)

전등사

정족산사고

삼랑성

고려궁지

전등사(傳燈寺)

14 김예원

한반도 역사와 더불어 요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강화도에서 전등사는 호국불교 근본도량으로 역사와 권위를 간직한 사찰이다. 전등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찰로 창건된 시기는 381년(고구려 소수림왕11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것이 372년이므로 전등사는 한국 불교가 전래된 초기에 세워진 현존하는 최고 도량임을 알 수 있다. 전등사를 처음 창건한 사람은 진나라에서 건너온 아도화상이라고 전해진다. 아도화상은 신라의 불교가 공인되기 전 눌지왕(재위: 417~458) 때 ‘묵호자’라는 이름으로 숨어 지내며 몇몇 절을 세우고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 눌지왕의 딸 성곡공주의 병을 고쳐준 일을 계기로 눌지왕에게 인정받고 홍륜사⁷⁾ 등 7개의 사찰을 신라 땅에 세울 수 있었다. 눌지왕 사후 신라 조정에선 다시 불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 그 후엔 금수굴이란 토굴에서 숨어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거가 희박한 전설일 뿐이고 실제로 전등사가 역사적 기록으로 등장한 시기는 진종사라는 이름으로 고려 고종 46년 때인 1259년이다. 당시 기록은 <고려사>에 나타나있는데, 그에 따르면 “고종 46년, 임금이 삼랑성 안에 가궐을 지었다.”라는 기록과 함께 그로부터 5년 후인 “원종 5년, 임금이 대불정오성도량을 열어 4개월 동안 베풀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대불정오성도량이란 부처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한다는 불교 행사로 임금이 이런 행사를 진종사에서 갖게 한 것은 당시 진종사(전등사)의 권위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고려 왕실에서는 삼랑성 안에 가궐을 지은 후 진종사를 크게 중창시켰으며(1266년), 1282년(충렬왕 8년)에는 왕비인 정화공주가 진종사에 경전과 옥등을 시주한 것을 계기로 ‘전등사’라 사찰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등사는 고려 왕실에서 꾸준히 관심 받았던 사찰이었던 만큼 그 후에도 충숙왕(재위 1313~1330년), 충혜왕(재위 1330~1332년), 충정왕(재위 1349~1351년) 때에 연이어 중수⁸⁾되었다. 전등사는 후에 몇 차례 화마를 겪긴 했지만, 변해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름 그 위기를 헤쳐 가며 지금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

7) 인천 연수구 동천동에 위치한 절로 신라 최초의 가람(伽藍)이며, 사지는 사적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다.

8) 重修. 건물 등 낡고 헌 것을 다시 손대어 고침.

대웅전



▲전등사 대웅전



▶전등사의 나부상

▲전등사대웅전-나부상

대웅보전은 규모는 작지만, 단정하면서도 정교한 조각 장식으로 꾸며져 조선중기 건축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석가여래삼존불을 모시고 있으며 광해군 13년(1621)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지붕은 옆면에서 보면 여덟 팔(八)자 모양의 팔작지붕이며, 지붕처마를 받치기 위한 장식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사이에도 있는 다포양식이다. 전등사의 대웅보전이 더욱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은 대웅보전의 네 모서리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나부상(裸婦像)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나부상을 원숭이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벌거벗은 여인’의 형태로 본다. 나부상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나라에서 손꼽히는 도편수가 대웅보전 건축을 지휘하며 그곳 주모와 눈이 맞아 사랑에 빠졌고, 자신의 재물을 모두 주모에

게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모는 도편수를 배신하고 야간도주를 하였고 주모에 대한 배신감과 실의에 빠진 도편수는 주모의 나쁜 짓을 경고하고 죄를 씻게 하기 위해 벌거벗은 추녀의 모습을 조각하여 기둥을 받치게 했다는 것이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네 가지 조각상 모두 제각기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웅보전은 부처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전각이지만 나부상을 통해 당시 선조들의 재치와 익살을 느낄 수 있다.

범종



▲전등사 범종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이 범종은 중국 북송의 철종 소성 4년(1097, 고려 숙종 2년)에 회주 수무현 백암산 승명사에서 주조된 철제종이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금속류 강제수탈로 빼앗겼다가 부평 군기창에서 발견되어 광복 후 독실한 불교신자에 의해 다시 전등사로 옮겨져 현재까지 보관 중이다. 높이 1.64m, 앞지름 1m의 종으로 소리의 울림을 돕는 음통이 없고, 종꼭대기에는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웅크려진 형태로 종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하학적 무늬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종과는 그 형태가 판이하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된 중국제 철제종이므로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

약사전



▲전등사 약사전

약사전은 창건 연대에 관한 기록이 없어 정확한 연대를 알 순 없지만, 건물의 겉모습이나 내부 장식이 대웅보전과 거의 비슷한 다포양식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건물 내부에는 조선 초기에 조성한 약사여래⁹⁾상을 모시고 있으며 천장의 중앙부분엔 우물천장을 두고 주위엔 화려한 연화당초문을 그려 놓았다. 그러나 건물 바깥벽엔 벽화를 그리지 않았다.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전면의 형식은 다포계이지만 다포계의 특징인 평방¹⁰⁾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까지 약사전이 다포계냐 주심포계냐는 식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9)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재앙을 없애며 현세의 복락을 이루게 하는 부처.

10) 다포 건물에서 주간포를 받기 위해 창방 위에 수평으로 창방과 같은 방향으로 얹히는 부재로 다포계의 특징이다



▲전등사-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목조석가여래삼존불상

전등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상은 조성원문을 통해 조선 광해군 15년(1632)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삼존불은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 세분의 부처님을 가리키는데 전체적인 이목구비나 비례 면에서 볼 땐 근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각각의 옷주름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개성이 느껴지는 것으로 보아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들의 조각적 개성이 표현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우수한 조각과 더불어 정확한 조성연대와 시주항목이 기록된 점을 통해 조선시대 불상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대조루

대조루

절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조루는 정확히 지은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기록상으론 조선 영조 25년(1749)과 헌종 7년(1841)에 고쳤다는 기록만 남아있다. 앞면 5칸, 옆면 2칸의 규모로 팔작지붕 형태이며 전등사의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섬세함이 돋보이는 누각이다. 영조 임금의 친필이 담긴 ‘취향당’이라는 현판과 추사 김정희가 쓴 ‘다로경관’이라는 현판이 보관되어 있다.



▲명부전

명부전

전등사의 법당¹¹⁾으로 약사전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명부전은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지만, 보수했다는 기록은 전해지고 있다. 특징으로는 지장보살¹²⁾상을 비롯해 시왕·귀왕 등 모두 29존상이 모셔져 있다. 이것은 전등사가 법당으로서 죽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원력과 제사의 공덕으로 그들이 극락으로 가길 바라는 선조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11) 사찰에서 부처나 보살 등 불교신앙의 대상이 되는 불상을 모신 전각에 대한 총칭

12)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며 모든 중생이 극락을 가기 전까진 결코 성불하지 않겠노라는 원을 세운 보살이다.



▲삼성각

모시고 있다.

삼성각

삼성각은 산신(山神), 칠성(七星), 독성(獨聖)을 함께 모시는 건물로 이는 중국의 도가사상을 가리킨다.

이 건물은 삼성신앙과도 관련 있는데 불교가 한국 사회에 토착화되면서 우리 고유의 토속신앙과 합쳐져 생긴 신앙의 형태로 전등사뿐만이 아닌 해인사, 보현사 등 다른 절에서도 삼성각을 지어 삼성(三聖)을

정족산사고(鼎足山庫址)

14 전병철



▲ 정족산사고지

보관하였다.

정족산 13)사고(史庫)는 1653년(효종 4년)에 마리산사고에 화재가 일어남으로써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1660년 정족산성이 완성되고 실록을 성 내의 사고로 옮기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실록이 사고로 옮겨진 것은 1678년(숙종 4년)이었다. 이후 실록이 만들어지는대로 1부씩 새로 보관하였고 그 밖에 왕실족보나 14)의례(儀軌)를 비롯한 여러 정부 문서를 함께

정족산사고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특히 15)외규장각(外奎章閣)이 설치된 후 그곳에 국왕의 초상화나 친필외에 많은 서책들이 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과는 별도로 운영되었으며 병인양요에도 피해를입지 않았다.

그리고 1910년 이후보관 서적들은 16)규장각(奎章閣)도서들과 함께



▲ 현판

13) 고려·조선시대 역대의 실록(實錄)을 보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했던 창고. 사각(史閣)이라고도 한다.

14) 예전에, 나라에서 큰일을 치를 때 후세에 참고를 위하여 그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를 자세하게 적은 책.

15) 1782년(정조 6)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조선총독부 학무과 분실로 모여져 관리되었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족산사고지(鼎足山史庫址)는 정족산성 안 전등사 서쪽 높이150m에 위치해있으며 건물은 1930년경에 없어진 것으로 보이거나 몇 해 전에건물이 복원되어 현판도 새 건물에 다시 걸은 상태이다.

16) 조선 정조 즉위년(1776)에 설치한 왕실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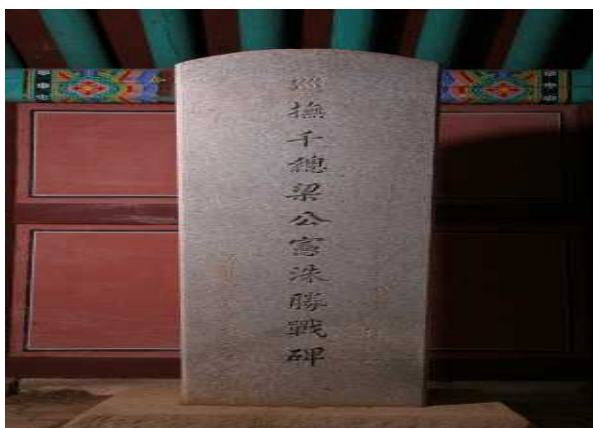
삼랑성

14 김경엽

삼랑성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정족산성이라고도 하며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있어 삼랑성이라고 불린다. 삼랑성은 고종 3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 군을 양헌수가 이끄는 조선수비대가 무찔러 프랑스 군을 철수시켰던 중요한 요새였다.



▲ 동문



▲ 양헌수 장군 승전비

삼랑성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있고 성 안에 13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하며, 고구려 때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전등사가 있다. 조선 영조 15년, 남문에 문루¹⁷⁾를 건립하여 이를 종해루라고 명명하였고, 현재 성 내에는 프랑스 군을 무찌른 양헌수 장군의 승전비가 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승전비는 총 높이 181cm, 폭 60cm, 두께 27cm이며 단층 1칸의 비각 내에 안

치되어 있다. 비 앞면에는 순무천총양공헌수승전비(巡撫千總梁公憲洙勝戰碑)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양헌수 장군의 공적이 새겨져 있다.

고려 때에는 고종 46년 5월에 중랑장 벼슬의 백승현이 풍수지리설에 따라 삼랑성 안에 쉼을 지었다. 조선 현종 때에 장사각(정족산 사고)을 지어 마니산사고에 보관되었던 왕조실록이 옮겨와 보관되었고, 선원보각을 지어 왕실 족보를 보관하

17) 궁문, 성문 따위의 바깥문 위에 지은 다락집

였다. 이들 실록과 족보는 병인양요 때에 아군이 잘 막아내어 프랑스 군으로부터의 약탈을 막았다. 그 뒤 전적과 실록은 서울로 옮겨져 오늘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었고,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삼랑성이 만들어진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고려 고종 때 삼랑성 안에 궁궐이 지어졌다고 하니 그 전에 이미 삼랑성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곽의 구조를 보면 잡석으로 축조되어 삼국 시대의 축성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고려시대에 보수(補修)¹⁸⁾, 조선시대에 중수(重修)¹⁹⁾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8)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

19)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하여 고침

고려궁지

14 오명희

고려 궁터



▲고려궁터 조감도

강화도는 고려 고종 19년에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왕도가 옮겨진 곳으로, 민족의 뼈아픈 역사가 쓰인 곳이다. 이러한 역사가 남긴 문화유산 중 하나로 강화도의 고려궁지를 꼽을 수 있다. 사적 133호로 지정된 고려궁지는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고종 19년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1234년에 세운 궁궐과 관아건물이다.

정궁 이외에도 연경궁, 그 북동쪽 언덕에 강안전, 소동문을 들어가 성마루터 북쪽에 경령궁, 옥림리 자문고개 서쪽에 건덕전, 그 동쪽에 장녕전, 뒤쪽에 만녕전, 그리고 북창문 밖의 대묘동에 태묘전각으로 대관전과 신격전이 있었으나, 1270년 강화조약 이후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몽고의 압박으로 허물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고려 궁궐터에는 강화의 지방 행정관서와 궁궐 건물이 자리를 잡았다. 강화의 궁궐은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 지금은 강화유수가 업무를 보던 동헌²⁰⁾과 유수부²¹⁾의 경력²²⁾이 업무를 보던 이방청 등 조선시대 유적만 남아있다.

20) 고을의 수령(守令) 등이 정무를 집행하던 건물

2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구역

22)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주요부서의 실무담당 종4품 관직

강화유수부 동헌



▲강화유수부 동헌

이 건물은 강화유수부의 동헌으로 지방관아의 정무가 행해지던 중심건물이며 일반 행정 업무와 재판등이 행해진, 오늘날의 군청과 같은 관아건물이다.

강화 유수부는 1627년에 인조가 강화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뒤 설치한 것으로 종2품 관청으로 삼았다. 현재 여러 차례에 걸친 개조로 원형은 남아있지 않다. 조선 인조 16년

(1638)에 유수 김신국이 개수하였고, 영조 45년(1769)에 유수 황경원이 현운관이라 명명하였다. 현재는 명위헌과 이관당의 현판이 걸려 있는데 당호²³⁾는 당시의 명필이며 학자였던 백하 윤순(1680~1714)의 필적이다. 건물구조는 정면 8칸, 측면 3칸의 익공계 팔작지붕²⁴⁾으로 되어 있다. 1977년 강화중요국방유적 복원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수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강화유수부 이방청



▲강화유수부 이방청

이방청은 강화 유수부 내 육방(예·병·공·이·호·형방) 중의 하나로서 1654년(효종 5) 유수 정세규가 건립하여 관아로 사용한 건물인데, 1783년(정조 7) 유수 김노진이 내부를 개수하여 계홀당이라는 당호를 게시하였다. 건물구조는 한식 목조 ㄷ자형 단층기와집으로 팔

23) 스승에게 법맥을 이어받을 때에 받는 법호

24) 한식가옥의 지붕 구조의 하나로, 합각지붕·팔작집이라고도 한다.

작지붕에 민도리²⁵⁾ 흘쳐마집²⁶⁾이다. 모두 12칸으로 온돌방이 8칸이고 우물마루²⁷⁾로 된 청마루가 12칸이며 부엌이 1칸이다. 1915년부터 현재까지 등기소로 사용하고 있다. 수차에 걸친 개수로 옛날 관아의 원형은 찾아볼 수 없으며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다.

외규장각



▲외규장각

외규장각 의궤²⁸⁾를 145년만에 프랑스로부터 되찾았다. 이는 당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들은 되돌려 받은 외규장각 의궤를 보기 위해 중앙 박물관을 찾았었다. 이러한 외규장각의궤가 있던 강화 외규장각은 조선시대 왕립 도서관격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으로, 1781년 정

조가 왕실 서적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 설립하였다. 왕실 관계 서적 1,000여 종, 6,000권 가량을 보관했으나 1866년 병인양요²⁹⁾ 당시,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 극동함대사령관 로즈 제독이 규장각을 불태워 전각³⁰⁾이 소실되었다. 이 결과로, 5,000여 권 이상의 책이 소실되었고, 의궤를 비롯한 340여 책의 문서 수천량이 약탈되었다.

한편, 1975년 서지학자 박병선 박사에 의해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외규장각 도서가 처음 발견된 후, 한국 정부는 이 도서들에 대한 반환을 추진해 왔다. 1999년 한국과 프랑스 정부 간의 반환 협상이 시작되었고,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

25) 기둥이나 벽체 윗부분이 도리와 장여 사이에 소로 없이 도리와 장여만으로 된 한식 주택

26) 처마 서까래만으로 된 처마. 부연을 달지 아니한 처마.

27) 짧은 널을 가로로 긴 널을 세로로 놓아 井자 모양으로 짠 마루

28)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

29) 1866년(고종 3) 흥선대원군의 천주교도 학살·탄압에 대항하여 프랑스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

30) '전(殿)'이나 '각(閣)' 자가 붙은 커다란 집

령이 2001년까지 외규장각 고문서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0년 3월 한국 정부는 약탈도서에 대한 영구대여 방식을 프랑스 정부에 공식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11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5년 단위 갱신의 대여방식으로 반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약탈해 간 294권의 조선왕실 의궤를 포함한 전체 297권의 외규장각 도서가 4차례에 걸쳐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다.

강화동종



▲강화동종

이 범종은 현재 강화도의 고려궁지에 보관되어 있으나, 원래 강화도 남단의 정족산성에 있던 종이다.

강화동종은 1711년(숙종 37)에 강화성문을 여닫을 때 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 처음에 1688년 강화유수 윤지완이 만들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1711년 강화유수 민진원이 깨진 종을 녹이고 여기에 재료를 더하여 정족산성에서 다시 만들었다. 조선 후기 범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

하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승장³¹⁾ 사인비구가 말년에 만든 작품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고종 3년(1866) 병인양요 때 침입한 프랑스군이 종을 약탈하여 가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한다. 이 종은 전통적인 고려 종의 양식이 퇴화하고, 조선 종의 새로운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종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높이 198cm, 입지름 138cm이며 전통형 범종과 달리 쌍룡과 음통³²⁾이 생략된 중국 종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종 꼭대기에는 두 마리 용이 얼굴을 좌우로 향하여 몸이 서로 얹히어 종을 매달기 위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종 윗면은 반원 모양으로 둥글고, 어깨 부분에는 ㄱ자형의 턱을 만들었다. 어깨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

31) 당나라에서 활약한 신라의 고승

32) 범종의 가장 위쪽에 있는 대나무 마디 모양의 소리 대롱

사각형 모양의 유곽³³⁾이 4곳에 있는데, 그 안에는 9개씩의 연꽃으로 된 돌기가 있다. 특히 옆띠로 구분한 하반부에는 종구에 한가닥의 꽃무늬옆띠를 돌린 취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 무늬띠와 가운데 옆띠 사이의 넓은 공간에는 장문의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이 명문에는 주종 관계와 개주 관계³⁴⁾ 등의 사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33) 범종의 윗부분의 네 곳에 있는 네모난 테

34) 활자나 주물 따위를 고쳐 다시 주조함.

조선시대(朝鮮時代)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갑곶돈대

14 구본희

갑곶돈대의 유래와 역사

갑곶이란 이름은 유래는 삼국시대 강화를 갑비고차(甲比古次)라 부르는데서 갑곶이라 이름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고려 때 몽골군이 이곳을 건너려고 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우리 군사들이 갑옷만 벗어서 바다를 메워도 건너갈 수 있을 텐데’라 한탄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전설도 있다. 돈대는 해안가나 접경



▲이섭정

지역에 돌이나 흙으로 쌓은 소규모 관측·방어시설이다. 병사들이 돈대 안에서 경계근무를 서며 외적의 척후 활동을 비롯한 각종 수상한 정황을 살피고 대처한다. 적이 침략할 때는 돈대 안에 비치된 무기로 방어전을 펼친다.

조선시대 강화도 해안에 돌로 쌓은 돈대 53개가 설치됐다. 갑곶돈대는 1679년(숙종 5) 5월에 완성된 48돈대 가운데 하나이다. 48돈대는 황해도·강원도·함경도 승군 8,900명과 어영청 소속 어영군 4,262명이 80일 정도 걸려서 쌓았다. 외부에서 강화로 들어오는 관문과 가까워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돈대이다. 포좌가 있는 본래의 갑곶돈대는 옛 강화대교 입구의 북쪽 언덕에 있었다. 지금 사적으로 지정된 갑곶돈대는 제물진과 강화 외성의 일부이다.

갑곶돈은 1656년 인천의 제물진에 소속되었다가 숙종 5년(1679)에 돈으로 축조되었다. 염주돈·제승돈·망해돈과 8문의 대포를 설치한 갑곶포대가 갑곶돈에 소속되었다. 고종 3년(1866) 9월 병인양요³⁵⁾ 때 프랑스의 극동 함대가 6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갑곶돈대에 상륙하여 강화성과 문수산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10월에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은 양헌수 장군의 부대에게 패하여 돌아났다. 1876년에는 일본의 전권대신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가 갑곶돈대에 상륙하여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신헌(申櫟)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35) 1866년(고종 3) 흥선대원군의 천주교도 학살·탄압에 대항하여 프랑스함대가 강화도에 침범한 사건

갑곶돈대의 시설

1977년에 옛터에 새로이 옛 모습을 되살려 보수, 복원이 이루어졌다. 지금 돈대안에 전시된 대포는 조선시대 것으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왜적의 선박을 포격 하던 것이다. 대포의 종류로는 불랑기포³⁶⁾ 와 소포³⁷⁾가 있다. 그리고 돈대 내에는 고 려 때 몽골과 외교교섭을 벌였던 이섭정(利涉亭)³⁸⁾이 있다



▲불랑기포

36)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援軍)이 가져와 전투에 사용한 대포.

불랑기라는 말은 중국과 교역을 하던 아라비아인들이 서양인을 프랑기(Farangi:中世의 Frank에서 유래)라고 말한 데서 생겼다.

37) 1874년(고종 11)에 제조된 청동제 유통식 화포(火砲)

38) 고려 때 몽골과의 협상에서 우리 측이 이롭게 되기를 염원하고 외교 사신들을 영접, 환송하기 위해 지은 강화도 관문의 팔각정이다.

광성보

14 이소정 14 김태훈



▲ 광성보 안해루(按海樓)

광성보의 건축역사

광성보는 강화도에 위치하고 있는 성으로, 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이다. 본래 광성보는 고려시대 때 몽고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한 후에 쌓은 강화외성의 한 부분이었다. 그 당시 흙과 돌을 섞어서 바닷길을 따라 길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대항을 위해 만들어진 부분의 하나였던 성곽을 조선시대 광해군 10년(1618)때 다시 고쳐 쌓은 후, 효종 9년(1658)에 강화유수 서원리(徐元履)가 광성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하게 되었다. 그 후 현종을 지나 숙종 때 이르러서야 용두돈대, 오두돈대, 화도돈대, 광성돈대 등 소속 돈대³⁹⁾를 만듬으로써 완전한 석성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영조 21년(1745)에는 성을 고쳐 쌓으면서 성문을 만들었는데 이를 ‘안해루(按海樓)’라 하였다. 이후 1871년에 발생한 신미양요 때 성첩⁴⁰⁾과 문루⁴¹⁾가 파괴된 것을 1976년에 이르러서 복원하는 동시에 당시 전사한 무명용사들의 무덤과 어재연의 쌍충비각을 보수, 정비하였고 1977년에는 광성돈,

39) 경사면을 절토(切土)하거나 성토(盛土)하여 얻어진 계단 모양의 평탄지를 옹벽(擁壁)으로 받친 부분을 말하는데, 분수·연못·화목(花木) 등이 조성되는 정원시설로서의 것과 성곽이나 변방의 요지에 구축하여 총구를 설치하고 봉수시설을 갖춘 방위시설로서의 것이 있다.

40) 성가퀴. 성 위에 담을 낮게 쌓아 몸을 숨기고 적을 치는 곳.

41) 아래에는 출입을 하는 문을 내고, 위에는 누를 지어 사방을 두루 살피는 기능을 가진 건물. 도성, 읍성, 궁성, 지방 관청의 바깥문을 누문으로 짓는 경우가 많다.

안해루, 손돌목돈, 용두돈 등을 복원하였다.

광성보와 신미양요

광성보는 1871년(고종 8) 신미양요의 격전지로 유명하다. 신미양요란 미국이 1866년에 발생한 제너럴셔먼호 사건⁴²⁾을 빌미로 로저스 제독이 아시아 함대를 이끌고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도에 침략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우리 군은 강화해협을 거슬러 올라오는 미국 함대를 광성·초지(草芝)·덕진(德津)·덕포(德浦) 포대⁴³⁾에서 일제사격을 가하여 물리쳤다. 그 후, 4월 23일에 450명의 미국해병대가 초지진에 상륙하여 진을 점령하고, 24일에는 미군이 북상하여 덕진진을 점령한 뒤, 곧이어 광성보로 쳐들어왔다. 이 때 광성보에는 어재연(魚在淵)이 이끄는 조선 수비병 600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어재연과 병사들은 열세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웠는데, 이 전투에서 중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것을 광성보 전투라고 한다. 이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생존한 조선군들이 있었지만 포로가 되는 걸 죽음보다 수치스럽게 여겨 많은 이들이 자결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광성보 전투를 끝으로 최초의 한미전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미군은 광성보를 점령해 수자기(帥字旗)⁴⁴⁾를 내리고 성조기를 게양했으며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였다.

광성보의 내부

광성보는 당시에 사용한 대포와 포대, 성이 잘 남아 있으며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과 돈대의 곡선 모양이 아름다운 곳이다. 광성보의 아름다움은 소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광성보의 복원된 성벽에 오르면 바닷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폭포소리처럼 들린다고 한다. 현재 광성보 안에는 광성돈대, 손돌목돈대, 용두돈대 모두 3개의 포대로 이루어져



▲ 쌍충비각(雙忠碑閣)

42)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다가 대동강에서 불에 타 침몰한 사건.

43) 적의 포격으로부터 포·포수·탄약 등을 방호함과 동시에, 아군의 포격에 편리하도록 구축된 축성물

44) 총사령관을 의미하는 '帥'자를 새긴 황색깃발.

있다. 광성돈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 사용하던 포인 대포, 소포, 불랑기가 있는데, 이들은 신미양요 때 파괴되었던 것이 1977년에 복원된 것이다. 광성돈대를 지나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좌측엔 신미양요 순국무명용사비와 쌍충비각이 있고, 우측엔 신미순의총이 있다. 쌍충비각은 신미양요 때 활약한 어재연 장군과 그의 아우인 어재순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만든 비각이다. 이 곳에서는 고



▲ 신미순의총(辛未殉義塚)

종 때부터 제사를 지내왔으며, 1970년부터는 어재연의 후손들이 제사를 올려 충절의 유업을 추모하고 있다. 쌍충비각 맞은편 아래의 신미순의총은 남아있던 시신들을 화장시켜 하나의 분묘에 7-8인씩 함께 합장한 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호랑이를 사냥하던 포수 출신들이라서 용맹함이 뛰어났다고 한다. 총을 지나 오른편에는 강화 53돈대 중의 하나로 숙종 때 축조된 손돌목돈대가 있다. 이곳은 강화도에서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있

어 강화 일대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다. 손돌목은 신미양요 때 순국한 어재연 장군의 전사지로, 용두돈대 바로 밑을 흐르고 물이 빙빙 돌아 들어가며 파도가 험하기로 유명하다. 안으로 계속 걸어 들어가면 강화도의 돈대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용두돈대를 볼 수 있다. 용두돈대는 강화해협을 따라 용머리처럼 돌출한 자연 암반 위에 설치된 교두보⁴⁵⁾로, 1679년에 세워져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치열한 포격전이 있었던 곳이다. 1977년 복원 당시 세운 ‘강화 전적지 정화기념비’가 용두돈대 위에 서 있다.

45) 강·호수·바다의 대안에 도과점을 엄호하고 차후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점

덕진진

14 강정인

강화 덕진진



▲ 덕진진

침략 당시에도 이곳을 지켰던 가장 중요한 외성의 요새였다.

병자호란 이후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효종 7년(1666) 강화유수 서필원(徐必遠)이 임금에게 청하여 본래 해군주둔지인 수영(水營)⁴⁷⁾에 속해 있던 덕진진을 통진 소속의 경기 김포시 덕포로 옮겼다. 또한 숙종 3년(1677)에는 강화유수 허질(許秩)이 임금에게 청하여 만호(萬戶)⁴⁸⁾로 승격시켰다. 덕진진은 숙종 5년(1679)에 손돌목의 용두돈대와 덕진돈대를 거느리고 덕진포대와 남장포대를 관할함으로써 강화해협에서 가장 강력한 포대였고, 강화 12진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 때는 양헌수(梁憲洙)의 부대가 밤의 어둠을 타서 이 진을 통하여 삼랑성(三郞城·일명 정족산성, 鼎足山城)으로 들어가 프랑스군에 일제사격을 가하여 물리쳤다. 1871년 신미양요 때는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해협을 거슬러 올라오는 미국 극동함대에 맞서 초지진·덕진진·덕포진 등의 포대에서 아주 치열한

덕진진(德津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에 있고 강화 덕진진으로 명칭변경된 국방을 목적으로 지어진 유적건조물이다. 덕진진은 병자호란 뒤 강화도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 12진보(鎭堡)⁴⁶⁾중의 하나이다. 덕진진은 덕포진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강화해협을 지켰을 뿐 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몽골의

46) 강화12진보는 강화에 있는 각종 해안초소의 진인 월곶진, 제물진, 용진진, 덕진진, 초지진의 5진(鎭)과 광성보, 선두보, 장곶보, 정포보, 인화보, 철곶보, 승천보의, 7보(堡)를 일컫는다.

47) 전임 수사가 있는 곳이다.

48)고려, 조선시대 외침방어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호부의 관직이다.

포격전을 벌여 J.로저스 중장이 이끄는 미국함대를 격파시키며 상당한 전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초지진(草芝鎭)에 상륙한 미국해병대에 맞서 열세한 무기로 전투하다가 미국군에 점령당하는 비운을 맞아 대부분이 포로 되기를 거부하여 중상자 소수를 제외한 전원 순국하였다. 이 때 문루터를 제외한 몸을 숨겨서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쌓았던 낮은 담과 건물을 포함해 돈대, 포대는 물론이고 성첩(城堞)과 문루(門樓)가 모두 파괴되었다.

1976년 성곽과 돈대를 고치고 남장포대도 고쳐 쌓았으며, 앞면 3칸·옆면 2칸의 문의 누각도 다시 세웠고, 당시의 대포를 다시 복원하여 설치하였다. 현재 덕진진에는 문루(門樓)·포대(砲臺)와 성곽·돈대(墩臺)가 남아 있다.

초지진

14 이수현 14 백인탁

강화 초지진

초지진은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강화 5진⁷보⁴⁹)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효종 7년(1656년)에 바다에서 침입하는 외적들을 막기 위해 구축한 요새로 1679년에 성으로 축조되었다. 1971년에 사적⁵⁰) 제225호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4,233m²로 작은 규모에 속한다. 초지진에는 병마첨절제사 1명, 군관 11명, 군사 320명, 배 3척이 주둔해 있었다. 초지돈(草芝墩), 장자평돈(長者坪墩), 섬암돈(蟾巖墩)이 초지진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1973년에 초지돈(草芝墩)만 복원하였다. 성은 높이 4m 정도에 장축⁵¹)이 100m쯤 되는 타원형의 돈(墩)⁵²)이다.



▲초지진

외세의 침략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초지진

초지진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이곳에서 프랑스 함대의 로즈 소장이, 1871년(고종 8년) 신미양요(辛未洋擾) 때 미국 아시아함대의 로저스 중장이 초지진을 침입하였고, 1875년(고종 12년)에는 일본 군함 운요호[雲揚號]와 이곳에서 교전하였다.

초지진은 특히 운요호 사건 때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종 12년(1875) 9월 일본배 운요호는 인천의 영종도 근처에 이르러 강화도 남단으로 거슬

49) 강화 5진: 월곶진, 제물진, 용진진, 덕진진, 초지진 7보: 광성보, 선두보, 장곶보, 인화보, 정포보, 철곶보, 승천보

50) 역사의 현장이거나, 산업·군사·교통·교육의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한 것.

51) 타원에서 2초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타원에 의하여 잘리는 선분을 단축이라고 하고, 2초점을 잇는 직선이 타원에 의하여 잘리는 선분을 장축이라 한다.

52) 평지보다 약간 높은 평평한 흙무더기



▲소나무포탄자국

러 올라갔다. 운요호의 함장 이노우에는 일본군을 이끌고 담수 보급의 명목으로 작은 보트를 타고 초지진으로 접근하였다. 이때 해안 경비를 서고 있던 조선 수병은 예고도 없이 침투하는 일본군 보트에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일본군은 모함으로 되돌아가 함포로 조선에 보복 포격을 가하였다. 이 포격으로 초지진 요새의 포대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초지진이 함락당하니 막을 방도가 없었던 조선 수군은

기세가 밀리기 시작하였고 일본군은 영종진에 상륙하여 조선수군과 격전을 벌여 많은 조선군을 살해하고 무기도 탈취하였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방화, 살해를 하고 퇴각하였다.

이러한 횡포는 통상을 강요하는 일종의 시위였으며, 우리를 개항시키려고 하는 제국주의의 압력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목적에 맞게 운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

高宗 8卷 8年 4月 24日 (癸未) 3번째기사 / 강화도를 서양인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군사들을 동원시키다

高宗 8卷 8年 4月 27日 (丙戌) 4번째기사 / 초지진과 덕진을 잃다

高宗 8卷 8年 6月 2日 (辛酉) 1번째기사 / 초지진과 광성진의 불탄 민호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다

高宗 13卷 13年 1月 13日 (乙巳) 3번째기사 / 접견 대관이 일본 군함에 가서 정박 사유를 물은 것에 대해 보고하다

▲조선왕조실록[고종]

홍이포(紅夷砲)

초지진은 조선 말기에 외세의 침략을 받던 치열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잦은 전투로 인해 상당 부분이 소실된 초지진은 1976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성곽 안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대포는 당시의 대포 중 가장 대형 규모인 2.5m 길이의 홍이포⁵³⁾가 일제 관리 사택의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제자리로 찾아 옮긴 것이다.

지금의 초지진 안에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때 사용했던 대포인 홍이포가 전시되어 있는데, 강화도의 다른 곳과는 달리 초지진에 전시되어 있는 이 포

53) 명나라 때 네덜란드의 대포를 모방하여 만든 중국식 대포



▲당시 조선군이 사용했던 대포

나라의 군대가 충돌했는데 네덜란드 선박이 사용한 포는 중국의 포보다도 훨씬 위력적이어서 명나라 군대를 압도했다. 당시 네덜란드인을 중국에서는 '홍모이(紅毛夷)'라고 부르고 있어서 네덜란드인이 사용한 대포를 '홍이포'라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인조 때 정식으로 들여왔으며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병자호란 때의 홍이포는 조선군에게 매우 위협이 되었지만 홍이포를 들여오고 나서부터는 좋은 무기가 되었다. 당시 명나라의 홍이포는 조선의 홍이포보다 훨씬 크기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할 때 초지진의 홍이포는 많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만 진품이다. 이 대포는 포구장전식화포⁵⁴⁾로 길이 2.15m·무게 1,800kg·구경 100mm이며 사정거리는 700m이다. 폭발하는 힘으로 포탄이 날아가지만 포탄 자체는 폭발하지 않아 위력이 약하다. 처음 홍이포는 중국이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두 국가간의 전투 중에 홍이포의 뛰어난을 알고 중국이 들여온 것이다. 1604년 네덜란드의 선박과 명

54) 포신의 입구로 탄환을 집어넣는 방식

개항기(開港期)

병인양요

신미양요

성공회 강화성당

병인양요(丙寅洋擾)

14 김현모

배경 : 병인박해(丙寅迫害)



▲로즈 제독

19C 중반 조선내부의 실정은 대원군이 가지고 있었다. 그는 천주교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인물이었다. 자신이 불우한 시절에 천주교인과 접촉이 있었고 고종의 유모와 대원군의 부인, 딸도 천주교도였다. 대원군은 집권 후 천주교도를 석방하기도 했다. 1864년 무렵 천주교도는 2만 3000여 명에 이르렀다. 대원군은 만약 러시아를 물리칠 수만 있다면 천주교 신아의 자유를 허락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어 천주교인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1866년 1월에 베이징 사신 이홍민이 보내온 편지가 문제였다. 청나라가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분위기에 국내의 반대원군세력들은 대원군이 천주교와 불순한 정치적 흥정을 한다며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대원군은 프랑스의 두 주교 베르뇌와 다블뤼를 만나려고

했지만 조정대신들의 반발이 거셌다. 1866년 1월 영의정 조두순과 좌의정 김병학 등은 두 주교를 만나서는 안 되며 남종삼을 비롯한 천주교도들을 전부 죽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강경파 유학자들은 천주교를 사교로 단정하고 철저한 박해를 주장했다. 결국 대원군도 그 의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이미 “운현궁 안에는 천주학쟁이들이 출입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는 행동을 나타냈다. 대원군은 천주교도를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결국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고 남종배 정의배 등 조선의 천주교 8천명이 학살되고 조선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 12명중 9명이 처형을 다한다. 나머지 3명중 한명인 리텔신부가 극적으로 탈출하고 그는 텐진에 있는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을 만난다. 로즈제독은 조선의 천주교 박해 사실을 듣고 함대를 출전하기로 한다. 그리고 프랑스 공사도 병인박해를 확인하고 프랑스와 조선의 수교 관계도 없고 조선

이 독립국가 이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 개입 없이 출병을 허락하게 된다.

병인양요의 경과

로즈 제독은 리델신부와 한국인 신도 3명의 안내로 프랑스 군함3척을 이끌고 인천 앞바다로 갔다. 양화진을 통과하고 한강의 서쪽까지 프랑스 군함이 들어오자 조선 정부는 이에 이용회를 불러서 인천 연안을 경비토록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군함은 단지 측량만 하고 철수 하였다.

그 후에 로즈제독은 다시 군함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강화도의 갑곶진을 점령했다. 그리고 강화성을 공격하여 강화성을 함락시키고 무기나 각종 서적 양식을 약탈했다. 조선은 이에 대응하여 한성근과 양헌수에게 각각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을 수비토록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측에 선교사처단의 합법성과 불법 침범에 대한 퇴고를 보냈다. 그러자 프랑스측은 선교사학살을 비난하고 책임자 엄벌과 조약을 맺자고 했다. 결국 서로 맞지 않게 되었고 프랑스군은 침범하려고 문수산성에 120명을 정찰하도록 하였다. 이때 잠복 중이던 한성근의 군대가 공격하였고 프랑스군은 27명이 사상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올리비에 대령이 군대를 이끌고 정족산성을 공격했으나 매복하던 조선군에게 사격을 받으면서 갑곶진으로 후퇴하게 된다. 이 전투의 패배로 인해 프랑스군은 사기가 저하되면서 로즈제독은 결국 강화성에 불을 지르고 철수 하게 된다.

병인양요의 결과와 의의

병인양요 이후 조선의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했고 천주교 박해 또한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중요한 문서들이 빼앗기게 되었다.

병인양요는 전쟁 면으로 봤을 때 조선에 패배를 확인할 수 있다.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전투에서도 오히려 프랑스군의 피해보다 조선군의 피해가 더 많았다. 그러나 조선은 프랑스군의 목적인 수교 맺기와 선교사학살에 대한 사과 둘 중 어떠한 것도 실행시키지 않았고 따라서 조선은 외교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양헌수 장군 승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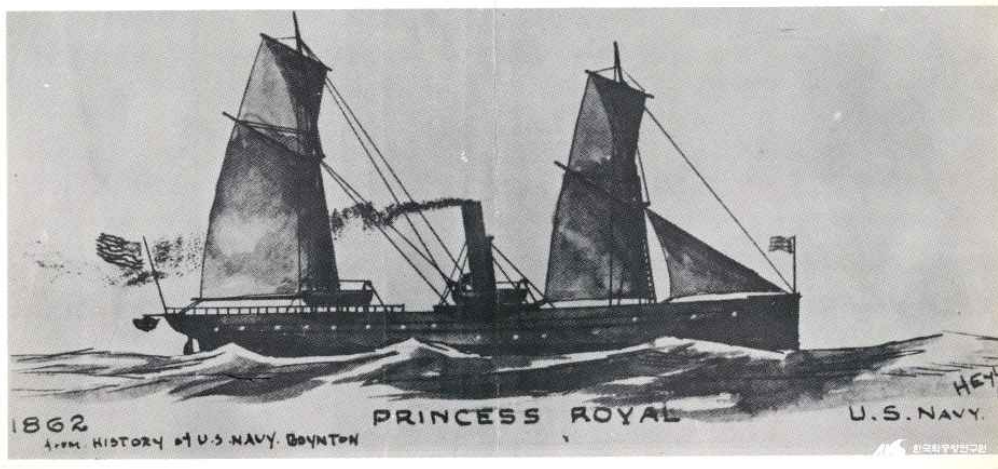
신미양요(辛未洋擾)

14 최재현

신미양요의 배경

조선 왕조의 외교원칙은 사대이성(事大以誠) 교린이신(交隣以信)이었다. 사대는 명과의 외교원칙이며 명에게 복속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교린이란 왜와 여진에게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베풀어 그들이 조선을 믿게 해서 조선의 변경을 소란하지 못하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조선은 해금정책(海禁政策)을 취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교통로가 외국에 알려지는 것을 적극 방지하고자 원거리 항해를 일체금지하고 왜구의 합법적 근절을 꾀하려는 의도였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국제관계는 중국 이외 타국과의 외교관계란 생각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당시 미국을 포함한 서양열강들은 대(對)아시아팽창주의정책을 펼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호개방을 위해서라면 포함외교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대원군을 집권한 시기에 러시아가 남하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해에서는 수시로 이양선⁵⁵⁾(異樣船)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는 등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서양열강의 문호 개방 요구를 모조리 무시하고 조선은 주변 나라가 개방을 할 동안 교류의 문을 닫고 지냈다. 그 이후에 1866년 8월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대포와 소총을 난사하면서 식량을 약탈하기 시작했다. 이 총격전에서 조선 측은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였다. 이에 격분한 평양 군민들은 셔먼호를 불태워버렸다. 미국은 이 사건을 트집 잡아 우리나라를 개항시키려 하였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이 배에 탄 서양 사람들이 통상을 요구하자, 관리들은 외국과의 통상을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배에서 내려 민가를 약탈하고 관리를 잡아 가두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은 제너럴 셔먼 호를 불살라버렸다. 미국은 1866년 8월 평양 대동강에서의 제너럴 셔먼 호(General Sherman號)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개항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 셔먼호사건을 응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조선과 통상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두 차례나 조선원정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55)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으로, 다른 나라의 배를 일컫는다. 주로 조선시대에 외국인의 철선을 가리키는 데 쓰였다.



▲ 제네럴 셔먼호

신미양요의 경과

확실히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조선 개항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영국 또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조선 원정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며, 단독으로 전권사절단을 파견하려 하였지만 어느 방법도 소용이 없자, 힘에 의한 포함외교를 통하여 조선 개항을 시도하였다. 더구나 1869년 미국에선 새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시아 무역 팽창정책 구현의 일환으로서 조선 개항이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1871년, 미국은 전통적인 포함 외교에 의해 조선을 개항하기 위해 마침내 조선 원정을 결정하였다. 주청미국공사 로우(Low, F.F.)에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Rodgers, J.)에게 해군함대를 동원, 조선 원정을 명하였다.

아시아함대 사령관 J.로저스는 군함 5척, 함재대포 85문, 해군과 육전대원 총 1,230명을 이끌고 5월 16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 항구를 출발하였다. 19일 남양만에 도착한 미군은 뱃길을 탐사하면서 북상, 물치도를 자국 함대의 정박지로 정하였다. 미군은 조선에 탐측 승낙을 일방적으로 통고한 뒤 서울의 관문인 강화도 해협 수로의 측량과 정찰을 목적으로 두 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당시 밖으로 강력 한 통상수교거부정책을 실시하던 흥선대원군은 미군의 불법 영해침범을 경고하고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미군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성진으로 접근해오자 조선군은 경고용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미군은 일단 물러났다. 그러나 미군은 조선군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격전지

경고용 사격을 빌미로 삼아 오히려 조선정부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군은 6월 10일 군함 2척을 앞세우고 육상 전투대원 644명을 강화도의 초지진에 상륙시켜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어 덕진진·광성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의 광성진전투에서 미군 역시 피해가 많아 이튿날 물치도로 철수하였다. 미군은 이곳에서 조선정부를 상대로 위협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통상수교거부정책과 조선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함대는 조선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신미양요의 결과

신미양요에서 희생된 양측의 전사자를 살펴보면, 미국 측은 전사자가 겨우 3명, 부상자가 10명에 불과하였다. 반면에 조선군 피해를 보면 전사자가 무려 350명, 부상자가 20명에 달하였다.



▲ 순흥 척화비(경북 영주시)

이렇게 볼 때에, 미군의 사상자와 조선군의 사상자 수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조선 측은 강화도 전투에서의 패배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미군측이 계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에 로저스 제독은 더 이상의 협상을 중단하고, 7월 3일 아시아함대를 철수시키고 말았다. 곧 조선정부는 이 철수를 미국의 패퇴로 간주하고 전국 각지에 56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 그 척화비의 내용은 “양이가 침범해도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하는 것이 오.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군의 강화도 내침은 분명한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군사적으로 조

56) 조선 고종 때 대원군이 양인(洋人)을 배척하기 위해 경향 각지에 세웠던 석비(石碑).

선을 정복, 지배하여 영토 분할이나 식민지화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포함책략에 의해 조선을 무력적으로 굴복시켜 조선 개항을 실현시키려는 일시적 침략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국·일본·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는 미국의 포함외교가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1871년의 대한포함외교정책은 완전 실패로 끝났다.

성공회 강화성당

14 이원혁



▲‘천주성전’이라 쓰여진 강화성당의 앞 모습

성공회 강화성당은 1990년 11월 15일, 트롤로프 주교(M. N. Trollope)가 설계, 감독하고 존 코르페(C. John. Corfe), 주교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성공회 성당이다. 우리나라 성공회 교회의 시초는 이 성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후에는 성당 뒤편으로 ‘성미가엘신학교’가 건축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성공회 강화성당은 한국인 첫 성공회

사제, 김희준, 신부를 배출하는 등 성공회를 대한민국 각지에 전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주변 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 터는 고려시대 몽고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한 옛 성터라고 한다. 성공회 강화성당을 이루고 있는 건물들의 배치방식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당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외삼문, 내삼문, 성당, 사제관이 동남쪽 방향으로 놓여 있는데, 이는 항해하는 ‘배’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의도적인 설계로 성당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나오는 배처럼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성공회 강화성당은 ‘성 베드로와 바울로 성당’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성공회 강화성당은 웅장하고 금은보화로 사치스럽게 치장된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과는 달리 단아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둥’ 과 ‘서’ 의 조화

성공회 강화성당을 밖에서 보면 마치 한국 불교사찰에 와 있는 듯 한 기분이 든다. 옛날엔 스님들이 성공회 강화성당을 지나가다 절 인줄 알고 잠시 예를 표하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성공회 강화성당의 외부는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기반으로 지어졌다. 때문에 웅장한 서양의 성당과는 달리, 성공회 강화성당은 단조롭고 단아한 느낌이 든다. 성당의 건축가 프롤로프는 한국불교와 무속신앙에 관심이 많아서 성당을 건축 할 때, 한국 문화를 많이 가미했다고 한다. 성



▲강화성당에 위치한 종의 모습

당 자체를 기와와 목재를 사용한 전통 한옥건 축방식을 도입한건 물론, 성당입구의 문에는 태극문양이 중앙에 그려져 있고 성당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우람한 보리수나무가 성당을 지키고 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한국의 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종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종도 볼 수 있다. 성당 지붕을 보면 십자가가 연꽃모양으로 되어있고 성당 현수막에 그려진 베드로를 상징하는 천국의 열쇠는 한국 무당이 사용하는 방울과 절 문양(卍)으로 되어있다. 이를 통해 초기 성공회는 강화도를 기점으로 ‘토착화’를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당의 내부는 전통 기독교 건축 양식인 바실리카 양식을 기반으로 지어져 있으며 한국 전통 한옥 건축방식으로 지어진 외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성당 내부는 정면 4칸 측면 10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0칸 중 8칸은 예배실, 나머지 2칸은 성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성당은 중층구조, 즉 이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당은 백두산에서 벌목을 한 목재를 사용한 전통한식목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성당은 예배를 위한 내부 공간을 양 옆으로 확장시켜 내부의 넓이와 깊이감이 있어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성당을 이루고 있는 벽들은 천장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공간의 깊이를 한층 더 높인다. 성당의 토대인 목재가 풍기는 단아함과 성당 내부의 깊이감은 성당에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 내부

다섯 개의 기둥

성당 정문을 보면 세로로 적힌 한자문구가 눈에 띈다. 이 글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자로 옮겨 논 글로서 중국 북경천주교회 성당에 있었던 문구를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이 글은 맨 왼쪽부터 이렇게 읽힌다.

1. 福音宜播啓衆民永生之方 (복음선파계중민영생지방)

복음을 널리 펴라

깨우치라

무리에게 영생의 길을

2. 神化周流衆庶物同胞之樂 (신화주류유서물동포지낙)

하느님은 (물이) 동산을 둘러 흐르게 하시고

만물을 살찌우시니

동포의 기쁨이라

3. 三位一體天主萬有之眞原 (삼위일체천주만유지진원)

삼위일체 천주님

세상의 참 근원이시라

4. 宣仁宣義聿照拯濟大權衡 (선인선의율소중제대권형)

인(仁)을 배풀라

의(義)를 배풀라

스스로 밝히고 구제하는 일이

큰 정의라

5. 無始無終先作形聲眞主宰 (무시무종선작형성진주재)

시작도 끝도 없는 분

짓기전에 소리를 드러내시니

참 주재(主宰)시어라

이 문장들은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글들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1번과 4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문장이고 2번과 5번의 하느님과 주재(主宰)는 하느

님을 지칭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3번 문장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1번과 4번 문장을 함께 해석하면 인(仁)과 의(義)를 배풀어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2번과 5번 문장을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하느님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참고문헌

- 강화지석묘

서울대 박물관, 「강화지석묘(부근리 고인돌)」 주변 시굴조사 약보고서, 서울대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강화도 고인돌군 정밀지표조사보고서」 강화군 1999
인하대 박물관, 「강화지역의 선사유적·유물」 인하대 박물관 2000
이형구, 「강화도 고인돌무덤(지석묘)조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김수자, 새가정 1999년 3월호(통권 46권 499호), 1999.3
박영순, 국토 2004년 9월호(통권275호), 2004.9
경기도박물관, 「(경기도)고인돌」 2007
강동석, 「강화 북부지역 지석묘사회의 취락유형 연구」 2003
유태용, 「강화도 지석묘의 축조와 족장사회의 형성과정 연구」 2002
이형구, 「강화도」 1993
Kocca 문화콘텐츠닷컴 「우리나라 고인돌의 세계적 위상」

- 전등사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전등사 홈페이지- <http://www.jeondeungsa.org/>
네이버 백과사전
김은숙 『금속유물보존처리에 대한 연구:전등사소장철제범종보존처리를중심으로』, 동국
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04
안옥근 『호국의 섬, 강화도』,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5

- 정족산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이상찬, 『정족산 사고본 태조~명종 실록의 구성과 서지적 특징』,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
국학연구원(한국문화), 2013
김기태, 『강화 정족산 사고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 연구
원, 2004

- 삼랑성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고려궁지

문화재관리국, 『강화전사유적보수정화지』 문화재관리국, 1978.
한림대박물관, 『강화 조선궁전지(외규장각지)』, 한림대박물관 연구총서 제25집, 2003.
김창현 「고려시대 강화의 궁궐과 관부」, 『國史館論叢』 106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강화문화원,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보고서』 강화군, 2009
신대현, 『전등사』 한국의 명찰 시리즈 1, 대한불교진흥원, 2009.
강화군사편찬위원회, 『신편 강화사』 중 문화와 사상, 강화군, 2003.
김형우·안귀숙·이숙희, 『인천의 전통사찰과 불교미술』 1,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1.
강화군·강화문화원, 『강화금석문집』, 2006.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지역 정보 포털 <http://www.oneclick.or.kr>
다음 문화유산 사진 <http://heritage.daum.net>
강화 나들이 <http://ganghwado.co.kr/>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갑곶돈대

무기사전, 2004.5.7, 도서출판 들녘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인천으로통하였느냐, 인천광역시, 2009년
문화재관리국, 『강화전사유적보수정화지』, 문화재관리국, 1978.
강화군·육군박물관, 『강화도의 국방유적』, 2000.
배성수, 「조선 숙종초 강화도 돈대 축조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광성보

박용순, 『광성보(廣城堡)와 신미양요(辛未洋擾)』, 국토연구원, 2004
박상표, 『서대문형무소와 강화도』,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05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국사편찬위원회 및 전자도서관 <http://www.history.go.kr/>
국회 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index.do>

- 덕진진

위키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
문화재청 <http://info.cha.go.kr>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이형구, 『강화도』, 대원사, 1995.
안옥근, 『호국의 섬, 강화도』, 현대사회연구소, 2005

- 초지진

[네이버 지식백과] 강화 초지진 [江華 草芝鎭]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초지진 홍이포 [草芝鎭紅夷砲] (두산백과)

한명기, 『병자호란1』, 푸른 역사, 2013, ‘부메랑이 된 홍이포’
무기와 방어구(중국편), 시노다 고이치, 신동기, 2009.2.11, 도서출판 들녘
『이야기 한국사』, 이현희, 교양국사연구회 지음, (청아출판사)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 조선왕조실록 [고종]

- 병인양요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학사, 2006

연갑수, 「대원군과 서양: 대원군은 쇄국론자였는가」, 역사비평, 2000

- 신미양요

네이버 두산동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현희, 『이야기 한국사』, 청아출판사, 2006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국회전자도서관학술기사)

- 성공회강화성당

서미원, 「성공회강화성당을 찾아서」, 『가...봅시다!』, 71~73쪽.

이환진, 「성공회 강화성당 본당 다섯 기둥에 켜있는 한문 문장」, 『신학기고』, 224~235쪽.

김태영, 손한울, 「성공회 강화성당의 목가구법에 나타난 종교적 성스러움의 공간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9권, 2009, 263~466쪽.

이정구, 「유교와 성공회 강화성당 건축」, 『하곡학 국제학술대회』, 제4회, 113~125쪽.

김희균, “성공회 강화성당”, 『네이버 지식백과』, 김효형 편집, 1996,